

엠에스오토텍, 자회사 명신산업 인적분할 통해 핫스탬핑 강화

- ▶ 분할 후 존속법인 '명신산업'에서 핫스탬핑 사업 집중
- ▶ 핫스탬핑 전문 자회사 육성 통해 차세대 R&D 및 해외 마케팅 강화

[본 보도자료는 공시사항으로 공시 확인 후 기사 검토 부탁드립니다.]

<2018-06-19> 엠에스오토텍이 핫스탬핑 사업 강화를 위해 도움닫기를 뛴다.

자동차 차체 부품 전문 기업 (주)엠에스오토텍(123040)은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명신산업(주)의 인적분할을 결의했다고 1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.

기존 사업부문 중 냉연부문을 분리해 신설법인 명신산업(주)을 설립한다. 존속법인 명신산업(주)은 핫스탬핑 사업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. 인적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인 핫스탬핑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.

1982년 설립된 명신산업은 차체 부품 전문 기업으로 냉연 및 핫스탬핑 공정에 특화돼 있다. 현재 엠에스오토텍의 핫스탬핑 공정을 전량 담당하고 있다. 2017년 매출액 1,746억 원, 영업이익 77억 원을 거뒀으며, 엠에스오토텍이 지분 55.7%를 보유해 지배하고 있다.

향후 명신산업은 ▲차세대 핫스탬핑 개발을 위한 R&D 강화 ▲해외 마케팅 강화 ▲생산 시스템의 혁신적 개선 등을 통해 핫스탬핑 사업 고도화에 힘을 계획이다.

엠에스오토텍은 명신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경량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, 이를 기반으로 전체 성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해 이 분야 글로벌 선두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.

엠에스오토텍 이태규 대표이사는 “핫스탬핑은 강판, 알루미늄 등 모든 차체 소재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”이라며 “전기차,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자동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, 메이저 자동차 업체와 협업 체제를 공고히 해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로 도약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☎ 자료문의 : (주)엠에스오토텍 안병호 차장 (054-770-1960)

(주)IR큐더스 김창훈 매니저 (010-8909-4042), 김물결 선임 (010-5104-3756)